

#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와 선(善)

주은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1. 도덕법칙을 주는 순수 실천이성

칸트는 순수 실천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이고, 우리가 윤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법칙을 (인간에게) 준다고 밝힌다.<sup>1)</sup>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실천 법칙은 오직 순수 이성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다. 즉,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만이 선(善)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행위의 준칙을 세웠을 때, 한낱 준칙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이 되려면 법칙 수립 형식의 감성적 조건에 의해 압도되지 않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규정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는 오직 순수한 이성만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

1)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KpV)』, 서울: 아카넷, 2002, A57 =V32(p93).

2) 칸트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성이 순수한 이성으로 실천적일 수 있다는 것[사실]만이 이성이 법칙 수립적[입법적]임을 가능하게 한다.”(KpV, A45=V25) “만약 이성적 존재자가 그의 준칙들을 실천적인 보편적 법칙들로 생각해야 한다면, 그는 이 준칙들을 질료 면에서가 아니라 한낱 형식 면에서 의지의 규정 근거를 가지는 그런 원리로서만 생각할 수 있다. 실천 원리의 질료는 의지의 대상이다. 이 대상은 의지의 규정 근거이거나 아니거나이다. 만약 그것이 의지의 규정 근거이면, 의지의 규칙은 경험적 조건에 (즉 규정하는 표상의 쾌 또는 불쾌의 감정에 대한 관계에) 종속할 터이고, 따라서 아무런 실천 법칙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법칙에서 모든 질료를, 다시 말해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일체 대상을 떼어내고 나면, 보편적 법칙 수립의 순전한 형식 외에 법칙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순수한 실천 법칙을 이성의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순수 실천이성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순수 이성만이 순수한 실천 법칙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인간이 정말 칸트가 말하는 선한 행위, 즉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 2) 가능하다 하더라도 왜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만이 선한 행위가 되는 이러한 도덕법칙체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 2.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첫째, 인간이 정말 칸트가 말하는 선한 행위, 즉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실천이성일만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행위할 때 무엇을 행할지 의지를 규정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순수한 실천 이성은, 다른 감성적 조건에 종속되지 않고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만 무엇을 행할지 의지를 규정한다. 이러한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 즉 도덕법칙이 바로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도 없다.”(KpV, A49=V27) “법칙의 순전한 형식은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만 표상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감관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또한 현상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법칙의 순전한 형식이라는 표상은 자연에서 인과 법칙에 따르는 사건들의 모든 규정 근거들과는 구별된다. …… 그러한 의지는 현상들의 자연법칙, 곧 현상들 상호 간의 인과법칙과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한 독립성은 그러나 가장 엄밀한, 다시말해 초월적 의미에서 자유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준칙의 순전한 법칙 수립적 형식이 오로지 법칙으로 쓰일 수 있는 의지는 자유의 지이다.”(KpV, A51=V29)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성은 도덕법칙이 어떠한 감성적 조건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는, 도대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규정 근거임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자유의 개념에 이른다. …… 순수 의지에 대한 개념은 순수한 실천 법칙들로부터 생긴다.”(KpV, A53=V30)

행위하라.”이다. 칸트는 이러한 도덕법칙을 보통의 이성적 존재자들은 직접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sup>3)</sup> 그리고 칸트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도덕법칙이 아니었다라면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을 자유를 자신 안에서 인식한다.”<sup>4)</sup> 이 때 자유란 어떤 사태를 최초로 야기함, “제일의 운동자”를 뜻한다.<sup>5)</sup>

그런데 행위의 법칙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 법칙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기원인성, 즉 자유를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칸트는 법칙은 그 자체로 실천적이기 때문에 법칙을 인식하는 것은 곧 법칙대로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sup>6)</sup> 그러나 현실세계의 인간은 순수 이성 외에 행복, 이념, 관습, 욕구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소로, 즉 경험적으로-조건지어진 이성도 가지고 있으며 실천이성일반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무엇을 의욕할지 선택한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의식하는 것은 오직 순수 실천이성이 하는 일이고, 순수 실천이성의 관점에서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자, 즉 신과 같은 예지자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감성적 요인에도 종속되어 있고 순수 실천이성의 명령의 지배도 받고 있는 감성적이면서 예지적인 존재자이다. 감성적이면서 예지적인 존재자에게 온전히 예지적인 자신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해서 온전히 예지적인 존재자로 행위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를 할 때 주관적 이성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둘째는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

3) 같은 책, A53=V30(p89).

4) 같은 책, A54=V30(p90).

5) 백종현, 『칸트와 헤겔의 철학』, 서울: 아카넷, 2010, p245.

6)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KpV)』, 서울: 아카넷, 2002, A55=V31(p91).

“[무릇] 이 실천 명제들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것이 요구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이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도록 주관적 이성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 2.1.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를 독려하는 주관적 이성의 개입

칸트는 이성이 순전히 독자적으로 (경향성의 작용 없이) 의지를 규정할 수 있고 정념적으로 규정되는 욕구 능력의 충동이 최소한만 섞여도 그것은 이성의 강점과 우수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sup>7)</sup>

그러나 순수 이성과 주관적 이성이 동시에 의지를 규정하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도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부주의로 자동차로 사람을 쳤다. 그 사람은 자기 안의 도덕법칙을 통해 마땅히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죄책감이 들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갔다. 칸트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동기 모두에 의한 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의 죄책감을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한 행위는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선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행위에서 오직 해야 한다는 순수 이성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만 행위를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듯하다. 죄책감이나 동정심, 미안함, 두려움, 손익 계산 등 모든 감성적 요인이 없이 오로지 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 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려 해도, 적어도 선하고자 하는 욕구는 함께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선하고자 하는 욕구는 감성적인 것이라고 느껴진다.

가령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의 뜻을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으로 삼을 것이다. 필자가 우연히 들었던 현대 기독교인들의 대화 중 일부가 다음과 같았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생각

7) 같은 책, A45=V25(p81).

했어.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한테 예뻐 보이고 싶기도 했지만.” 이 때 ‘하나님한테 예뻐 보이고 싶다’는 ‘선하고자 하는 욕구’와 비슷해 보인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계에도 종속되고 현실 세계에도 종속된 그들은 칸트가 주장하는 예지세계에도 종속되고 현상세계에도 종속된 인간의 모습과<sup>8)</sup> 비슷해보였다. 그리고 이 때 하나님 세계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유비시켜 예지세계의 법칙을 따르는, 즉 도덕법칙을 따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주관적 이성이 선한 행위를 독려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칸트는 인간이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을 갖는다고 하고 이 존경을 도덕감정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이는 정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 이성에서 비롯된 특수한 것이라고 한다. 모든 감정은 감성적인 것인데 반해 윤리적 마음씨의 동기는 모든 감성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이 감각은 그 근원이 정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작동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도덕감정은 순전히 윤리법칙을 자기 안에서 준칙으로 삼기 위한 동기로만 쓰인다.<sup>9)</sup>

그런데 도덕감정이 경험적으로-조건지어진 이성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도덕법칙이 필연적 실천 법칙이듯이 그러한 도덕법칙에의 존경심 역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즉 도덕감정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부녀자를 잔인하게 죽인 연쇄살인범의 경우, 전쟁에서 대학살을 지시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도덕법칙에의 존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위

8)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정초(GMS)』, 서울: 아카넷, 2005, B110=IV453.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오성[예지]세계의 성원으로 놓고, 의지의 자율을, 그 자율의 결과인 도덕성과 함께 인식하되, 그러나 우리가 [윤리법칙의 준수에] 의무 지워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감성 세계에 속하면서 또한 동시에 오성[예지]세계에도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9)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KpV)』, 서울: 아카넷, 2002, A134 이하=V76(p156-157).

의 필연성과 어긋나 보인다. 그러나 이 때 우리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 사람이 아닌 것과 같다.”라고 흔히 말한다. 인류가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도덕적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인류 공통의 감정이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도덕감정은 순수 이성 내에 존재한다는 칸트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본다.

## 2.2.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주관적 이성의 개입

둘째는 대부분의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감성적 요인에 종속되어 도덕법칙을 따를 수 없는 경우이다.

가령, 필자가 소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내 핸드백 속의 지갑이 보이자 한 학생이 내 핸드백을 닫으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훔쳐가요.”라고 말했다. 그 학생은 내 열린 핸드백 속의 지갑을 보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학생은 훔치면 안 되기 때문에 훔치지 않아야 한다는 순수 실천이성이 규정하는 의지를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훔치고 싶다는 자신의 경향성을 억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외부적으로 자신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도록 내 핸드백을 닫아버린 것이다. 이 학생이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자신의 경향성을 따르지 않고 순수 실천이성이 규정하는 의지를 따르는 것이었지만 자신이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 것이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도덕법칙의 예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예를 찾아보자. ‘열공 백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인터넷을 돌며 다른 짓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돈을 내고 인터넷을 차단해버리는 것이다. 겨우 자신의 경향성을 억제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스스로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도록 수많은 학생들이 돈을 지불한다. 또한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의 식생활과 운

동을 관리해주는 곳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많다.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경향성을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지력이 부족해서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소년원에서 물건을 훔치면 즉시 손을 잘라버리는 규정이 있다면, 인터넷 강의의를 들을 때 다른 짓을 하면 즉시 퇴학시켜버린다는 규정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 기름진 음식을 먹는 즉시 운동장을 100바퀴 돌린다면, 위와 같은 의지력 부족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칸트는 이런 예시를 들고 있다. “누군가가 그의 성적 쾌락의 경향성에 대해, 사랑스런 대상과 그것을 취할 기회가 그에게 온다면, 그로서는 그의 경향성에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다고 그럴듯하게 둘러댄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그가 이런 기회를 만난 그 집 앞에, 그러한 향락을 누린 직후에, 그를 달아내기 위한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래도 과연 그가 그의 경향성을 이겨내지 못할까?”<sup>10)</sup> 인간은 아무리 강력한 경향성이라도 물리치고 자기원인에 따라서, 즉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물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더 큰 경향성을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칸트는 또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든다. “그의 군주가 그를 지체 없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군주가 기꺼이 그럴듯한 거짓 구실을 대파멸시키고 싶어 하는 한 정직한 사람에 대하여 위증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할 때, 목숨에 대한 그의 사랑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때 과연 그가 그런 사랑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를 물어보라. 그가 그런 일을 할지 못할지를 어찌면 그는 감히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그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주저 없이 인정할 것임에 틀림없다.”<sup>11)</sup> 이 예시는 분명 경향성과 순수 실천이성의 의지 규정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연 이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부당한 죽음을 막기 위해 자신이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특히 만약에 누군가

10)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KpV)』, 서울: 아카넷, 2002, A54=V30(p90).

11) 같은 책, A54=V30(p90).

에게 그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자식을 죽게 할까.

칸트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순수 실천이성의 의지 규정은 정언 명령이라고 한다.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 있어서는 순수한 의지를 전제할 수 있지만 실제의 인간에서는 도덕법칙을 거스르는 어떠한 준칙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신성한 의지를 전제할 수 없으므로 순수한 의지의 규정이 실천 의지 일반을 강제하는 책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그리고 이러한 책무를 따라 신성성에 접근해 가는 것이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이러한 덕이야말로 유한한 실천이성이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밝힌다.<sup>13)</sup>

나는 이 부분에서 칸트가 본인의 주장을 조금 약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신성성에 접근해가는 것이 유한한 실천이성이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칸트 스스로가 말했듯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완전히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행위하도록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인내하고 노력하는 정도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정도로 강력해야 할 것이다. 칸트가 죽음을 제시하면 성욕을 참을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간은 강력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유한한 존재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신과 동등하게는 아니지만 신과 흡사하게 행

12)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비록 순수한 의지를 전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갖 필요욕구들과 감성적 동인들에 의해 촉발되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성한 의지를, 다시 말해 도덕법칙에 거역하는 어떤 준칙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의지를 전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법칙은 인간들에게는 정언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무조건적인 것이니 말이다. 그러한 의지가 이 법칙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책무라는 명칭 아래의 종속성이다.”(KpV, A57=V32)

13) 같은 책, A58=V33(p95)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공부만 해야 한다”가 실천법칙인 어떤 고등학생의 왕국을 상정하고, 모든 고등학생들은 어떠한 정념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공부만 하는 자신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해서 유한한 인간인 자신이 이러한 자유로운 존재자로 행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고등학생들 중 어떤 이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의무감을 가지고 다른 반대되는 욕구들을 쳐내고 실천법칙을 준수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이 상정하는 자유로운 존재자의 모습과 닮아간다. 반면 어떤 학생들은 다른 정념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법칙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아진다.

필자는 지금까지 도덕법칙의 인식이 자유의 존재를 말해주지만 그것은 순수 실천이성의 지배만 받는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온전히 주어지는 것으로써 현실적 인간은 감성적이고 동시에 이성적 존재자이므로 그러한 자유를 온전히 발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은 실천에 있어서 순수 실천이성의 의지 규정에 의한 행위만을 따르도록 죽음을 무릅쓸 만큼 강력하게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신성성에 다가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인간은 죽음을 무릅쓸 만큼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순수 실천이성의 의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 3. 왜 자유로워야 하는가

즉 둘째, 왜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만이 선한 행위가 되는, 이러한 도덕법칙체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한강의 <어둠의 사육제>라는 소설에서 한 여인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비가 없어, 대학에 가기 위해 홀로 서울에 와서 등록금을 모은 한 여학생의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다. 이로 인해 그 여학생은 순수하고 밝은 본성을 잃는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여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녀는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어쩌서 사람이 자신의 목숨에 대한 사랑이라는 경향성마저 이겨내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도덕법칙을 따라야 하는가.

칸트는 앞서 도덕법칙이 무조건적이며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이 사물과 달리 수단이 아닌 목적일 수 있게 해주고 인격성, 신성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가 인격성, 신성성도 필요 없고, 남에게 목적으로 대우받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덕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도덕법칙을 따르지 경향성을 따르도록 내버려둘지 선택하는 것 역시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왜 도덕법칙의 의무를 저야하는 것일까. 즉, 인간은 왜 자유로워야 하는가.

칸트는 도덕법칙은 그것이 실천 법칙이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sup>14)</sup> 도덕법칙이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조건을 근거로 한다면 주관에 따라 도덕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인정하고 덧붙여 그 이유가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칸트는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 즉 도덕법칙이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sup>15)</sup>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법칙은 순수 이성의 사실로, 보통의 지성[상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준칙에서 어퍼

14) 칸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욕구 능력의 객관(질료)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전제하는 모든 실천 원리들은 모조리 경험적인 것이며, 어떠한 실천 법칙도 제공할 수가 없다.”(KpV, A39=V22), “모든 질료적 실천 원리들은 그 자체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것이며,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속한다.”(KpV, A40=V22) “자기 사랑의 원리가 그들에 의해 실천 법칙이라고는 결코 주장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차 자체가 단지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 근거는 아무래도 언제나 주관적으로만 타당하고, 한낱 경험적인 것으로, 모든 법칙에서 생략되는 그런 필연성, 곧 선험적 근거들에 의한 객관적 필연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KpV, A47=V26)

15) 같은 책, A55=V31(p91)

한 형식이 보편적 법칙 수립에 적합하고, 어떠한 형식이 적합하지 않은가를 배우지 않고서도 구별할 줄 안다고 한다.<sup>16)</sup> 여기에서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누구에게나’라고 생각한다. 도덕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 혼자 산다면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 고려할 일이 없게 된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든 그것이 타당해야 한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누군가가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보다는 부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도덕적 행위의 기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를 따지는 도덕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늘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가령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은 얼핏 보면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물건을 훔침으로써 본래의 소유주는 부당하게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문제는 그 소유주가 입을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다.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신의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역시 정의에 어긋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느낄 억울함과 박탈감, 그리고 실질적인 손해가 그 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므로 자칫하면 타인이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를 지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의 행위가 그러한 다른 인격체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더라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도덕법칙, 즉 나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칙이 되도록 그렇게 행위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가 의욕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고문을 받지 않으려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데 위증을 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강요했을 때 우리는 쉽게 신체적 아픔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위증으로 억울하게 죽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고문의 아픔을 훨씬 더 참게 될 것이다. 만약

16) 같은 책, A49=V27(p85)

위증으로 억울하게 죽게 될 대상이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면 분명 고문의 아픔을 참아낼 것이다. 가령, 길을 가다가 어떤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귀찮거나 무서워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만약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그렇게 행위한다면, 내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것이고 그 때 나는 얼마나 절망적일 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어둠의 사육제>라는 소설의 예시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여인이 자신이 전 재산과 영혼을 훔쳐버린 그 여학생을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동일하게 행위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 행위란 나와 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비도덕적 행위는 타인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를 같은 인격체로써 본인에게 대입해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칙은 그토록 강력한 규제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미처 다 못해볼 수도 있으므로 도덕법칙의 준수는 더욱 강력한 의미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도덕적 행위만을 일삼는 사람이 자신은 어떠한 인격적 대우도 원치 않으며 동물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다고 주장한다 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한 그는 진심으로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비도덕적 행위를 할 일도 없을 것이고,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면 자신에게 인격적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결론

여기까지 필자는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만이 선(善)한 행위가 되는 것이 타당한다. 즉,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왜 그러한 행위만이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해보았다. 순수 실천이성이 의지를 규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무릅쓸 만큼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와 거의 흡사하게 행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행위만이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도덕법칙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덧붙여 도덕적 행위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백종현, 『칸트와 헤겔의 철학』, 서울: 아카넷, 2010.

Kant, I.,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2.

Kant, I.,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5.